

기본급 184,900원 인상!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
회사의 노동안전보건 의무 확립! 성폭력 예방 및 금지!



지부교섭 속보

1호

2023.04.17(월)

■발행처:교육선전부 ■발행인:박종우 ■주소: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무진빌딩 8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2023년 지부교섭 시작!



교섭원칙 합의

2023년 지부교섭이 시작됐다. 올해부터는 코스 모축매가 새로 참여한다. 노사는 4월 13일(목) 15시 한온시스템 교육문화관에서 상견례를 갖고 교섭원칙에 합의했다. 박종우 지부장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모든 것이 다 올랐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조합원의 조건을 감안해서 교섭하자”며 원만한 합의를 당부했다.

<교섭원칙>

1. 교섭장소 : 전차 교섭에서 결정
2. 교섭 개최 : 매주 목요일 14시 30분
3. 교섭 위원 : 각 사별 임원급을 포함한 2인 이상
4. 교섭 운영 원칙
 - 교섭성원 : 9인 이상 참석 (각 사별 1명 이상)
 - 간사 : 노(정성훈 사무국장), 사(한온 원유호 상무)
 - 사회 : 노사 윤번제로 진행
 - 서기 : 노(임성우 교섭국장), 사(한온 김재완 전임)

2023투쟁 승리! 지부 전진대회

지부는 4월 13일(목) 2023투쟁승리 지부 전진대회를 2차례 열었다. 10시에는 테스트테크, 13시에는 한온시스템에서 각각 전진대회를 진행했다. 테스트테크지회는 올해 2월에 설립된 신생 지회다. 기본협약도 맺고 전임자, 조합사무실도 원만히 논의하던 중 갑자기 어용노조가 생겼다. 회사의 지원을 받아 조합원 수를 늘린 어용노조에 교섭권을 빼앗겼다. 한온시스템은 노사합의 사항을 회사 마음대로 파기하면서 노사관계를 최악으로 만들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이 현장을 흔들고 있다. 악질자본은 정부의 노조탄압을 활용해서 민주노조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올해 사업장 임단협뿐만 아니라 정부의 노조탄압에 맞서 제대로 싸워야 한다. 그래야 민주노조를 지킬 수 있다.

1차 교섭 (상견례) 속기록

내 월급 빼고 다 올랐다!

노 : 다들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많이 좋지 않다. 한국경제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 감안해서 올해 요구안은 많이 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모든 것이 다 올랐는데 내 월급만 안올랐다고 말한다. 노사 모두 지혜를 모아야 되는 상황이다. 또 한편으로는 정부 노동정책으로 노사관계가 어려워지는 한해가 될지 모르겠다. 지부는 어느 지역보다 원만히 합의해왔다고 생각한다. 올해도 기대하겠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조합원 조건을 감안해서 교섭에 임해달라. 노조는 교섭에 최선을 다하겠다.

사 : 3일째 황사가 심하다. 목이 켄켄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겠다. 황사가 원래 중금속 범벅에 납, 규소 등 건강에 상당히 좋지 않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란다. 각사 이해관계가 다르겠지만 원만히 풀릴 수 있게 노력하겠다.

사회 : 교섭원칙 논의하고 마무리하겠다. 사전 공유된 교섭원칙 이견이 있나?

노 : 이견 없다.

사회 : 교섭장소에 대해 지부가 다음차수 장소 제안해주시면 되겠다. 교섭시간은 14:30으로 하고 필요시 협의하겠다.

노 : 작년처럼 주기적으로 순환하는건 어려울 것 같아서 교섭장소를 노사가 한번씩 정하는 걸로 하자고 했는데 사용자가 노조측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줘서 다음차수 장소는 전차에 정

하는 걸로 하겠다.

사회 : 오늘은 차기교섭 장소, 시간 확인하겠다.

노 : 차기교섭은 JCC에서 하자. 그 사업장에 문제가 있어서 하자는 건 아니다. 인근 지역에서 지부의 선전전, 집회 활동 등이 있어서 그렇다.

사회 : 차기교섭은 4/20(목) 14시30분, 한국 JCC에서 하겠다.

노 : 이택산업지회 명칭이 리택지회로 바뀌었다. 변경 부탁한다.